

지역 공약 본격 검토…광주·전남 반영 총력전

국정기획위, 146개 공약 검토 TF 구성…재정 소요·우선 순위 등 파악키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146개 지역 공약을 뜯어볼 별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대선공약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택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지방공약들이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다뤄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공약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지역 공약은 현재 위원회 내 각 분과위원회에 검토

업무가 제각각 분배돼 있다. 하지만, 정책 중심의 201개 중앙 공약과 달리, 지방 공약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많은 예산·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 위주여서 별도 기구를 구성해 재정 소요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TF는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분과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공약을 주로 담당하는 경제2분과 자원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공약이 많다. 이는 반드시 예산 대책을 수반해야 하고, 치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TF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 이어 박 대변인은 “재정 탓에 당장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발표되면 자칫 지역에서 서운해 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현재 지방공약이 140개 정도 된다. 각 사업의 재정수요를 먼저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기준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역시 굉장히 중대하게 고려할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31일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

사협의회와도 면담,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지방공약 TF가 구성되면서 현재 국정기획위가 운영하는 TF는 ▲국가비전 및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재정검토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TF 등 5개로 늘었다.

한편,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특으로 정무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특로 임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신안 반월 당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수 백년 된 팽나무·후박나무·송악 등 숲 이뤄

신안 반월 당숲이 산림청으로부터 섬 문화 유적을 간직한 숲으로 인정받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 안좌면 반월리에 자리한 신안 반월 당숲은 인동장씨가 모여사는 집성촌으로 마을 입구에는 450여 년 전 주민이 섬에 들어오면서 심은 나무가 숲을 이루었다.

당 주변으로 300여 년이 훌쩍 넘어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 3그루와 주변에 느릅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송악, 마삭줄 등 난대수종이 숲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돌담을 두르고 제단을 설치해 매년 정월 보름날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며 제를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숲이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 관리를 통해 훼손을 막고 지역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변 관광지로는 우리나라 대표 서

양화가인 김환기 화백의 생가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 있다. 지난 2015년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반월·박지도에 해상목교인 ‘소망의 다리(577m)’가 연결돼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전남의 가치있는 산림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외연을 확장해나가겠다”며 “후대에 게 아름다운 자산을 남기도록 산림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안 반월 당숲 지정으로 전남 지역에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완도수목원 가시나무 숲가마터, 해남 관두산 풍혈 및 샘, 나주 불회사 비자나무와 차나무숲, 유달산 저수·저사택과 사방시설, 고흥 나로도 편백숲, 총 7개소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

내일부터 한달간 가동 중단

호남 1,2호기는 제외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가 오는 6월 1일 0시부터 한 달간 가동중단(셧다운)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기를 다음 달 일시 셧다운하고 내년부터는 3~6월 중으로 정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석탄발전기를 운영하는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셧다운 계획을 30일 내놓았다.

셧다운 대상은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다. 이들 발전기의 가동 기간은 32~44년, 설비용량은 총 2845MW다.

호남 1·2호기(500MW)는 가동한 지 각각 44년이 됐지만, 지역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정례적으로 노후 발전기 가동을 멈춘다. 다만 셧다운 기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셧다운으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을 함께 추진한다.

애초 영동 2호기는 2020년 9월, 삼천포 1·2호기는 2020년 12월, 호남 1·2호기는 2021년 1월, 보령 1·2호기는 2025년 12월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셧다운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올해는 2015년 대비 3%(5200t), 2022년에는 18%(3만 2000t)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 구속수사 및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유정 대학생단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라 오늘 귀국…뇌물수수 공범 입건 가능성

특수1부가 ‘승마 의혹’ 조사

“비선 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문제 등 파헤쳐 온 수사팀이 31일 귀국하는 정 씨의 조사를 주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 등과 함께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입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정 씨가 한국으로 압송되면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주로 조사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1부는 작년 하반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때 승마 지원을 비롯해 삼성그룹이 최 씨 모녀를 특혜 지원한 의혹을 주로 수사했다. 당시 수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경위 확인과 맞닿아 있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협력해주고 최 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 씨의 주요 혐의가 이와하여 부정 입학(업무방해) 등인 점에 비춰본다면 특수1부가 정 씨 조사에서 ‘주포’(主砲)로 배치된 것에는 뇌물 의혹 사건

에서 정 씨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잠정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검찰이 지목한 삼성과 최 씨 사이의 거래 의혹에 관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삼성이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한 법인 코어스포츠에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거액을 송금했고 이 돈이 뇌물로 지목됐으므로 사실상 수해자인 정 씨가 양측의 ‘거래’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정 씨는 앞서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소송 중에 검찰의 신문에 코어스포츠의 지분을 자신과 최 씨,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시대-지역발전 대전환기’로 1면에서 계속

이를 감안해 시·도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현안의 상당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라 중앙부처들도 호남을 각별하게 챙기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운정현 광주시장은 수시로 서울을 찾아 관련 중앙부처와 국정기획위원들을 만나 광주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나

연 전 지사의 총리 지명 이후 달라진 위상을 살리고 있다.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송정~목포) 무안공항 경우, 여수 경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남도문예르네상스 등과 거 전남도의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들이 그동안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시·도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협력함으로써 어렵사리 맞이한 지역 업그레이드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방 임야48,600㎡ 매6.6억원
-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1,207㎡ 매2.9억원
-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2,100㎡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상가건물 대 440㎡ 건물 1,500㎡ 매 25억
- 쌍암동 4층 상가건물 대 610㎡ 건물 1,100㎡ 매 29억
- 쌍암동 5층 상가건물 대 650㎡ 건물 2,200㎡ 매 35억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1861㎡ 매 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전동 생산복지, 대로전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복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복지 창고용지 도로전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치대농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성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어싱 매트셋트 동별
대리점 및 영업인력 모집

- 대리점 마진 개당 30%(약 100만원)
- 영업노하우 전수
- 영업인력 판매마진 개당 15%(약 50만원)
- 현금, 신용카드 (세금 부담 없음)

★대리점 및 영업인력은 겸업, 프리랜서, 주부부업 가능
★어싱매트셋트 기능(21세기 자연치유의 최고봉-어싱)

땅과 접지를 통하여 모든병의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 염증제거, 혈액순환,
몸속정전기 제거, 전자파차단 등으로
탁월한 자연치유 및 질병예방기능

※ 점점 질환자들이 늘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향후 새로운 유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어싱코리아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32-8 동진빌딩 2층
H. 010-8600-0484
(062) 263-9429